

한국 중학생의 환경적, 개인적 대처자원과 대처전략의 관계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차이 검증

최 정 아*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대처자원으로서 가족의사소통과 친구관계, 개인적 대처자원으로서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주요 변수들 간의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경로에서 성별에 따르는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의사소통과 친구관계는 각각 관여 대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관여 대처에 대해서는 가족의사소통과 친구관계 모두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 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모형의 경로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의사소통과 친구관계가 각각 비관여 대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가족의사소통 및 친구관계,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중요성과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관계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청소년, 대처자원,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구조방정식, 다집단 분석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I. 서 론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신체적, 대인관계적, 인지적, 환경적 변화 및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Schonert-Reichl & Muller, 1996), 대처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는 발달단계라고 할 수 있다. 대처란 스트레스를 처리하거나 인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결과에는 스트레스 정도 뿐 아니라 개인의 대처 역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련 이론에서 대처는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해 왔다(Tobin et al., 1989). 그동안 대처와 관련하여 수행되어온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적응적 결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대처 유형의 기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여 대처 유형에 따른 대처와 적응적 결과 사이의 관련성이 밝혀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연구들은 대처전략의 효과로부터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그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최희진·유영주, 2004; 박연성·현은민, 2009; Alexander et al., 2001; Taft et al., 2007),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영향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대처능력 강화에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되는 개념은 바로 대처자원(coping resources)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대처 이론에 의하면 대처자원은 환경적 대처자원과 개인적 대처자원으로 구분되는데(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대처자원으로서 가족의사소통과 친구관계, 그리고 개인적 대처자원으로서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였다. 즉, 가족에서 사회적 지지가 전달되는 주요 수단이자 통로로서 기능하는 의사소통(Gardner & Cutrona, 2004)과 또래에 대한 헌신이나 애정 또는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친구관계(Furnam & Robbins, 1985)에 주목하였으며,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평가 요인으로서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Lazarus, 1991; 최정아, 2009)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자원인 가족의사소통 및 친구관계와 대처 간의 관계에서 개인적 자원인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부모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신향숙·장윤옥, 2001; 고경애·정민정, 2007)과 또래 및 친구관계(김귀숙 외, 2003; Fordham, 1995)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대처전략의 사용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Terry, 1991a)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 그리고 대처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친구관계, 자기효능감, 대처 등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져(노호은·박경자, 2001; 고선주 외, 2004; 임수경·이형실, 2007; Claes, 1992; Tamres, et al., 2002) 이들 간의 관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대처자원으로서 가족의사소통과 친구관계가 대처전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개인적 대처자원인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역시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대처전략과 대처자원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대처의 정의는 라자러스(Lazarus, R. S.)와 포크맨(Folkman, S.)의 정의로서, 이들에 의하면, 대처는 “개인의 자원에 부담이 되거나 이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 내적, 외적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끊임없이 변화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된다(Lazarus & Folkman, 1984, p.141). 라자러스와 포크맨(1984)의 문제중심 대 정서중심 대처 구분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성인 대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대처 구분은 바로 관여(engagement) 대 비관여(disengagement) 대처라고 할 수 있는데(Tobin et al., 1989), 관여 대처는 스트레스원 또는 정서나 사고에 초점을 두는 반응들을 의미하며(예를 들어, 문제 해결 또는 사회적 지지 추구 등), 비관여 대처는 스트레스원이나 자신의 정서 또는 사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반응들(예를 들어, 철회나 부인)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처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대처전략과 다양한 적응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한 예로 아동 및 청소년의 대처와 정신건강 문제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한 콤파스(Compas, B. E.) 등(2001)에 의하면, 관여 대처 및 문제중심대처와 심리적 적응 사이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관여 대처 및 정서중심대처는 낮은 수준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대처전략의 효과로부터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그 초점을 바꾸어 왔는데(최희진·유영주, 2004; 박연성·현민, 2009; Alexander et al., 2001; Taft et al.,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되어 온 개념이 바로 대처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대처 이론에 의하면 대처자원은 대처전략에 선행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며(Lazarus & Folkman, 1984, p. 158), 이러한 대처자원은 개인적 자원과 환경적 자원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대처 과정을 형성하게 되는 비교적 안정된 성격 및 인지적 특성을 의미하며, 후자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 측면을 의미한다(Terry, 1991b). 개인적 자원과 관련하여 대처는 자기효능감이나 낙관주의, 또는 일관성과 같은 성향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Holahan et al., 1996), 주요한 환경적 자원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지각된 지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적극적인 평가 및 대처와 관련된다(Holahan et al., 1997). 타프트(Taft, C. T.)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대처자원의 일부가 관여 대처에는 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비관여 대처에는 부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처자원이 관여 및 비관여 대처에 대하여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처자원은 스트레스 경험을 처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처전략 사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의사소통, 친구관계, 자기효능감과 대처간의 관계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대처자원으로서 가족 및 친구의 기능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대처자원으로서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였다.

환경적 대처자원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지지에 주목하여 왔다. 즉, 지지적인 사회적 지원망의 존재는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다양한 자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가족의 지지와 또래의 지지가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Lyons et al., 198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 의하여 환경적 대처자원으로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사회적 지지의 주요 제공자로서 가족과 친구에 주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지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개념인 가족의사소통에 주목하였다¹⁾. 코르너(Koerner, A. F.)와 핏츠패트릭(Fitzpatrick, M. A.)(2002)은 가족 성원들 간의 상호 지지에 있어 의사소통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통도식이론(general theory of family communication schemata)에 기초하여 가족의사소통의 대화지향성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대화지향성과 청소년의 적응 간의 긍정적 관련성 때문이다. 대화지향성은 모든 가족 성원들이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제한되지 않는 상호작용에 참여하도록 권장되는 분위기 정도를 의미한다(Koerner & Fitzpatrick, 2002).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대화지향성이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능력, 또래와의 관계, 그리고 적응유연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Fitzpatrick & Koerner, 1996, Koerner & Fitzpatrick, 2002 재인용), 갈등 회피와는 부적, 그리고 사회적 지지 추구와는 정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oerner & Fitzpatrick, 1997). 이러한 결과는 대화지향성이 긍정적인 가족 내 상호작용 뿐 아니라 대처와 관련된 부분에 까지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화지향성은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능력, 또래와의 관계, 그리고 적응유연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하여 보다 잘 대처 또는 적응할 수 있게끔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다른 사회적 지지의 주요 원천이 되는 친구관계에 주목하였다. 청소년기는 발달적 특성 상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기로서,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또는 상호작용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친구관계가 없는 아동들은 보다 많

1)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평가되어야 하는 주요 차원이자 개입의 목표가 되는 핵심적 가족 기능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의사소통이다(김유숙, 2000).

이 외롭고(Parker & Asher, 1993), 학교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Ladd, 1990). 또한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친구관계가 아동의 삶에 있어 긍정적 또는 보호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포트햄(Fordham, K.)(1995)은 자신의 연구를 통하여 양질의 친구관계는 자기가치감을 증진시키게 되어 다른 또래관계와 관련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많은 연구 결과들은 친구관계와 긍정적인 사회적, 정서적 결과 간의 강한 관련성을 제시해주고 있어 청소년의 적응에 유용한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양질의 친구관계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및 대처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에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대처자원으로서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평가 요인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Lazarus, 1991),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진로나 학업성취 등 지적 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져(문병상, 2000; 이기학·이학주, 2000) 대처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드물기 때문이다. 반두라(Bandura, A.)(197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행동의 시작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이들은 어려움이나 도전을 만났을 때 더 잘 견뎌내며(Coleman & Karraker, 1997),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행동이나 적응적인 대처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 Karraker, 1997).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필요한 대처 행동의 시작과 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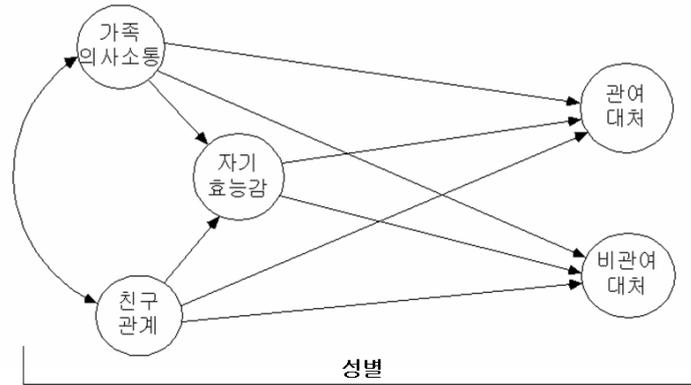
한편,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가족 및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경애와 정민정(2007)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가족의사소통이 향상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해순과 강태완(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긍정적,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부정적, 폐쇄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포트햄(1995)의 연구에 의하면, 친구관계의 질과 자기가치감 사이에 정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귀숙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또래 애착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족의사소통 및 친구관계가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앞서 언급된 가족의사소통, 친구관계, 자기효능감 및 대처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고선주 등(200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여아는 남아에 비해 친구관계의 질적 측면에 가치를 두거나(Claes, 1992), 갈등 해결방식에 대해서 친구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이은혜 외, 2000)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외에 자기효능감과 대처의 경우에는 일관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대처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많은 대처 행동을 한다는 결과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문제중심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가 모두 보고되고 있다(Tamres et al., 2002).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관련 변인들에 대한 성별 차이를 보고하고 있지만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의 성차를 검증한 경우는 보고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대처 이론과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환경적 대처자원으로서 가족의사소통과 친구관계, 그리고 개인적 대처자원으로서 자기효능감이 관여 및 비관여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가운데 서울시의 11개 지역 교육청 중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 6개의 지역 교육청 소속 중학교와 경기 지역 중학교 총 12개 학교를 표집하여 2회의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한 후 2008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11월 29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되었다. 본 조사를 통하여 총 1,363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이 많은 125부를 제외한 총 1,238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 도구²⁾

1) 대처

본 연구에서는 관여 대처와 비관여 대처를 측정하기 위하여 CSI-S(Coping Strategies Inventory-Short form, Tobin, 1995)를 사용하였다. CSI(Coping Strategies Inventory,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모두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러한 번역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 1인과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전문가 1인에게 검토를 받았으며, 원문항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Tobin, 2001)는 특정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대처 사고 및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CSI의 축약형인 CSI-S는 관여 대처와 비관여 대처를 측정하는 32문항(각각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척도의 평균 내적 일치도는 .90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obin, 1995). 본 연구에서의 관여 대처 차원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46, 비관여 대처 차원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43으로 나타났다.

2) 가족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RFCP(Revised Family Communication Pattern instrument, Fitzpatrick & Richie, 1994)의 대화지향성 하위척도 15문항을 사용하였다. RFCP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가족의사소통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대화지향성 차원의 내적 일치도는 평균 .89(.84~.92)로 나타났으며(Koerner & Fitzpatrick, 2002),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37로 나타났다.

3) 친구관계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FQQ(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 Parker & Asher, 1993)의 수정된 척도(Goss, 2006)를 사용하였다. 수정된 FQQ는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연구에 의하면 수정된 FQQ의 내적 일치도는 .89인 것으로 나타났고(Goss, 2006),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9로 나타났다.

4)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SE(General Self-Efficacy Scale, Schwarzer & Jerusalem, 1995)를 사용하였다. GSE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내적일치도는 .75~.91인 것으로 나타났다(Schwarzer & Scholz, 2000).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21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처에 대한 환경적, 개인적 대처자원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또한 가족의사소통 및 친구관계와 대처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³⁾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1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238)

구 분	성별 빈도(%)			
	남(n=591)	여(n=647)	계(n=1,238)	
연령	13세	16(2.7)	33(5.1)	49(4.0)
	14세	176(29.8)	253(39.1)	429(34.7)
	15세	182(30.8)	157(24.3)	339(27.4)
	16세 이상	217(36.7)	204(31.5)	421(33.9)

$$3)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구 분	성별 빈도(%)			
	남(n=591)	여(n=647)	계(n=1,238)	
학년	중 1	176(29.8)	265(41.0)	441(35.6)
	중 2	158(26.7)	138(21.3)	296(23.9)
	중 3	257(43.5)	244(37.7)	501(40.5)
부모 동거	양부모와 동거	522(90.8)	566(90.9)	1,088(90.8)
	한부모와 동거	49(8.5)	49(7.9)	98(8.2)
	조부모와 동거	4(0.7)	8(1.3)	12(1.0)
생활수준	상	114(19.5)	112(17.5)	226(18.4)
	중	388(66.2)	456(71.4)	844(68.9)
	하	84(14.3)	71(11.1)	155(12.7)

먼저,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591명(47.7%), 여학생은 647명(52.3%)으로 여학생이 약간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은 대부분 14세에서 16세에 해당되었으며(96.0%), 17세인 학생도 1명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90.8%에 해당하는 1,088명이 양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44명의 학생(68.9%)이 자신의 생활수준이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2. 주요변수의 기초 통계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평균 및 표준편차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요 변수의 왜도 및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⁴⁾.

4) 왜도가 2보다 크거나 첨도가 7보다 큰 경우(일반적인 통계 패키지에서는 3을 뺀 4보다 큰 경우)가 아니면 추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West, et al., 1995).

<표 2> 각 변수의 일반적 특성 및 자료의 정상성

(n=1,238)

잠재 변수	측정 변수 ⁵⁾	남				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가족	FC 1	2.786	.712	-.554	.359	2.756	.746	-.395	-.086
	FC 2	2.561	.665	-.230	.240	2.526	.662	-.135	.212
의사	FC 3	2.526	.736	-.050	-.125	2.445	.803	-.005	-.531
소통	FC 4	2.646	.690	-.238	.152	2.568	.723	-.191	-.001
	FC 5	2.649	.732	-.336	.122	2.625	.765	-.258	-.182
친구 관계	FQ 1	2.891	.590	-.264	.365	3.097	.538	-.404	.499
	FQ 2	2.692	.638	-.273	.063	2.962	.606	-.206	-.103
	FQ 3	2.829	.599	-.410	.557	3.092	.551	-.294	.206
	FQ 4	2.848	.493	-.039	-.214	3.008	.478	-.217	.028
	FQ 5	2.871	.510	-.231	.295	3.052	.489	-.102	-.009
	FQ 6	3.033	.527	-.329	.418	3.123	.474	-.139	-.137
자기 효능감	SE 1	2.727	.645	-.296	.776	2.761	.595	-.130	.596
	SE 2	2.622	.678	-.022	.132	2.577	.608	.267	.230
	SE 3	2.760	.657	-.437	.731	2.780	.575	-.160	.906
	SE 4	2.669	.682	-.244	.279	2.649	.636	.162	.095
	SE 5	2.737	.659	-.226	.460	2.727	.568	-.064	.870
관여 대처	EC 1	2.843	.511	-.523	1.261	2.889	.483	-.194	.688
	EC 2	2.805	.532	-.523	1.483	2.862	.506	-.151	.923
	EC 3	2.634	.615	-.274	.113	2.906	.614	-.462	.426
	EC 4	2.762	.517	-.456	1.309	2.804	.502	-.203	.866
비관여 대처	DC 1	2.131	.632	.130	-.159	2.169	.624	.225	-.012
	DC 2	1.895	.650	.507	.073	1.969	.644	.353	-.128
	DC 3	2.654	.686	-.338	-.029	2.802	.631	-.349	.293
	DC 4	2.480	.603	-.361	.050	2.461	.581	-.277	.412

FC1-FC5: 가족의사소통 문항묶음, FQ1-FQ6: 친구관계 문항묶음, SE1-SE6: 자기효능감 문항묶음, EC1: 문제해결, EC2: 인지재구조화, EC3: 사회적 지지추구, EC4: 정서표현, DC1: 자기비난, DC2: 사회적 철회, DC3: 소망사고, DC4: 문제회피

5) 가족의사소통, 친구관계, 자기효능감은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사용하여 임의로 지표변수(indicator)를 개발(random splitting method)하였다. 변수의 문항이 많은 경우 문항묶음방법은 추정오차를 감소시키며 자료의 연속성 및 정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그 변수가 1요인인 경우에는 임의로 지표변수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홍세희, 2008).

<표 3>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n=1,238)

	FC1	FC2	FC3	FC4	FC5	FQ1	FQ2	FQ3	FQ4	FQ5	FQ6	SE1	SE2	SE3	SE4	SE5	EC1	EC2	EC3	EC4	DC1	DC2	DC3	DC4	
FC1	.721**																								
FC2	.686**	.707**																							
FC3	.640**	.672**	.782**																						
FC4	.640**	.665**	.743**	.776**																					
FC5	.696**	.677**	.707**	.747**	.139**																				
FQ1	.253**	.280**	.281**	.256**	.221**	.607**																			
FQ2	.217**	.222**	.272**	.179**	.170**	.613**	.617**																		
FQ3	.226**	.239**	.257**	.212**	.198**	.561**	.576**	.463**																	
FQ4	.148**	.174**	.187**	.183**	.148**	.400**	.434**	.494**	.602**																
FQ5	.139**	.170**	.143**	.141**	.138**	.406**	.461**	.520**	.537**	.507**															
FQ6	.201**	.148**	.173**	.187**	.168**	.413**	.460**	.520**	.541**	.563**	.220														
SE1	.325**	.312**	.222**	.305**	.289**	.248**	.183**	.144**	.160**	.156**	.205**	.687**													
SE2	.284**	.297**	.282**	.304**	.292**	.236**	.173**	.165**	.134**	.116**	.186**	.657**	.728**												
SE3	.289**	.297**	.237**	.219**	.289**	.223**	.210**	.190**	.177**	.203**	.230**	.637**	.697**	.746**											
SE4	.249**	.274**	.298**	.255**	.283**	.239**	.217**	.194**	.217**	.230**	.245**	.647**	.647**	.695**	.735**										
SE5	.261**	.286**	.293**	.256**	.265**	.270**	.247**	.202**	.213**	.233**	.255**	.310**	.331**	.316**	.351**	.341**									
EC1	.285**	.299**	.274**	.289**	.269**	.302**	.319**	.301**	.286**	.258**	.310**	.331**	.363**	.316**	.351**	.341**	.620**								
EC2	.225**	.262**	.223**	.275**	.241**	.282**	.273**	.307**	.209**	.218**	.267**	.295**	.286**	.330**	.332**	.289**	.384**	.376**							
EC3	.286**	.327**	.374**	.305**	.313**	.404**	.415**	.434**	.248**	.251**	.279**	.230**	.204**	.218**	.224**	.227**	.476**	.526**	.550**						
EC4	.250**	.304**	.294**	.287**	.277**	.410**	.358**	.368**	.260**	.217**	.268**	.401**	.393**	.373**	.358**	.399**	.476**	.526**	.550**	.152**	.080				
DC1	.051	.034	.082**	.036	.080	.066	.118**	.099**	.066	.005	.039	.143**	.121**	.066	.064	.054	.178**	.141**	.152**	.152**	.080	.406**	.383**	.029	
DC2	-.088**	-.090**	-.038	-.071	-.085**	-.201**	-.102*	-.135**	-.181**	-.228**	-.278**	-.189**	-.176**	-.216**	-.153**	-.168**	-.066	-.106**	.022	-.104*	.425**	.466**	.310**	.170**	
DC3	.049	-.007	-.002	.020	.043	-.045	-.007	.073	-.064	-.080	-.027	-.152**	-.203**	-.150**	-.142**	-.146**	.104*	.092*	.076	.023	.475**	.348**	.308**	.308**	
DC4	.000	.015	.008	-.017	-.033	-.113**	-.021	-.058	-.111**	-.022	-.068	-.020	-.049	.040	-.012	-.009	-.007	.090*	-.001	.083*	.271**	.237**	.521**	.521**	

*p<.05, **p<.01, ***p<.001 대각선 아래 : 남, 대각선 위 : 여

3. 모형 검증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측정모형 분석결과

(n=1,238)

잠재변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t
가족 의사소통	→ FC1	1.000	.803		
	→ FC2	.922***	.815	.028	32.468
	→ FC3	1.126***	.854	.032	34.635
	→ FC4	1.048***	.866	.030	35.339
	→ FC5	1.116***	.873	.031	35.683
친구관계	→ FQ1	1.000	.714		
	→ FQ2	1.180***	.759	.048	24.442
	→ FQ3	1.131***	.786	.045	25.198
	→ FQ4	.814***	.677	.037	21.941
	→ FQ5	.836***	.674	.038	21.849
	→ FQ6	.829***	.675	.038	21.888
자기효능감	→ SE1	1.000	.769		
	→ SE2	1.125***	.834	.036	31.239
	→ SE3	1.105***	.856	.034	32.229
	→ SE4	1.179***	.853	.037	32.118
	→ SE5	1.064***	.827	.034	30.940
관여 대처	→ EC1	1.000	.685		
	→ EC2	1.064***	.698	.053	20.160
	→ EC3	1.098***	.594	.062	17.695
	→ EC4	1.062***	.709	.052	20.408
비관여 대처	→ DC1	1.000***	.596		
	→ DC2	.926***	.535	.070	13.165
	→ DC3	1.296***	.733	.091	14.251
	→ DC4	.682***	.432	.060	11.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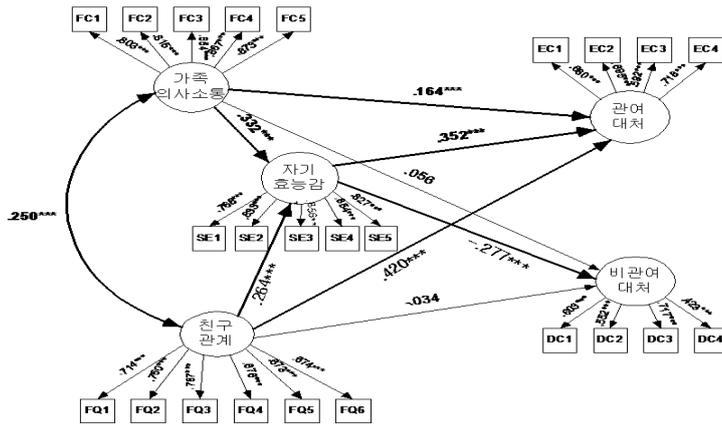
$\chi^2(df; p)=1460.024(242;.000)$ $TLI=.911$ $CFI=.922$ $RMSEA=.064(.061, .067)$ $SRMR=.055$

* p<.05, ** p<.01, *** p<.001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Tucker-Lewis Index)=.911, CFI(Comparative Fit Index)=.922,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064(90% 신뢰구간: .061-.067),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055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⁶⁾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족의사소통, 친구관계, 자기효능감, 관여 대처, 비관여 대처를 나타내는 각각의 측정변수들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2) 구조모형 분석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X^2(df, p)=1497.451(243;.000)$ $TLI=.908$ $CFI=.919$ $RMSEA=.065(.061, .068)$ $SRMR=.057$

* $p<.05$ ** $p<.01$ *** $p<.001$. 표준화계수. 오차항 생략.

[그림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6) CFI와 TLI값은 높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이며, 대략 .9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RMSEA 값은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대략적으로 RMSEA<.05 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RMSEA<.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RMSEA<.10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RMSEA>.10이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 홍세희, 2000 재인용). 마지막으로 SRMR은 .08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며, 앞서 언급된 이러한 4가지가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적합도 지수로 알려져 있다(Hu & Bentler, 1999; 홍세희, 2007).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908, CFI=.919, RMSEA=.065(90% 신뢰구간: .061-.068), SRMR=.057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관여 대처에 대한 가족의사소통의 직접 효과 및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 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관여 대처에 대한 가족의사소통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가족의사소통과 관여 대처 간의 사이에서는 부분 매개, 그리고 비관여 대처와의 사이에서는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관계 역시 관여 대처에 대한 직접 효과 및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관여 대처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친구관계와 관여 대처 사이에서는 부분 매개, 그리고 비관여 대처와의 사이에서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앞서 제시된 연구모형 검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간접 경로에서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Z	유의도(p < .05)
가족의사소통 → 자기효능감 → 관여 대처	-7.484	유의
가족의사소통 → 자기효능감 → 비관여 대처	-5.545	유의
친구관계 → 자기효능감 → 관여 대처	6.502	유의
친구관계 → 자기효능감 → 비관여 대처	-5.108	유의

즉, 관여 대처 및 비관여 대처에 대한 가족의사소통의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와 관여 및 비관여 대처의 관계에서 역시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구조모형에서의 잠재변수 간의 경로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다집단 분석⁷⁾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하기 위하여 기저모형(baseline model)에 대한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증,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검증,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 검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기저모형)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의 경우 적합한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남녀별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자유도	TLI	CFI	RMSEA	SRMR
남자	874.872	243	.904	.916	.066(.062, .071)	.060
여자	912.145	243	.905	.917	.065(.061, .070)	.058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다집단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 할 조건인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측정변수의 요인계수가 남녀 집단 간에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형과 이러한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간의 X2 차이 검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각 잠재변수의 모든 측정변수들이 남녀 집단 간에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완전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완전측정동일성모형과 기저모형 간의 X2 차이는 45.229로서 이는 자유도 차이 19에서 유의하여 완전측정동일성이 기각되었다($p < .05$). 따라서 남녀 집단 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요인계수에 대한 제약을 풀어 줌으로써 부분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기저모형과 부분측정동일성 모형 간의 X2 차이값이 28.461로서 이는 자유도 차이 18에서 유의하지 않아 부분측

7) 구조방정식 다집단 분석은 집단을 나누어 동시에 투입하는 다중 집단 인과모형 분석으로, 각 집단에 대하여 경로 간 동일화제약(equality constraint)을 가한 다음 기저모형(baseline model)과 제약모형(constraint model) 간의 X2 차이 검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다(홍세희, 2008)

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표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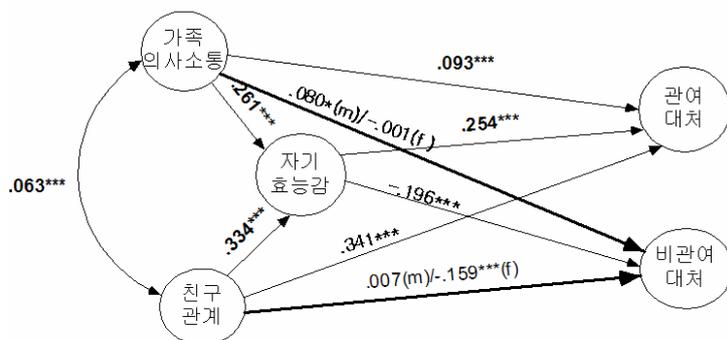
〈표 7〉 다집단(남·녀)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TLI	CFI	RMSEA	SRMR	$\Delta\chi^2$	Δdf	가정
기저모형	1787.017	486	.905	.916	.047	.060			
완전측정동일성모형	1832.246	505	.906	.914	.046	.060	45.229	19	성립X
부분측정동일성모형 ⁸⁾	1815.478	504	.907	.915	.046	.060	28.461	18	성립O
완전구조동일성모형	1842.111	513	.908	.914	.046	.068	26.633	9	성립X
부분구조동일성모형 ⁹⁾	1829.486	511	.908	.915	.046	.064	14.008	7	성립O

다음으로는 각 잠재변수 간의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잠재변수 간의 경로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가한 완전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부분측정동일성모형과 완전구조동일성모형 간의 χ^2 차이는 26.633으로서 이는 자유도 차이 9에서 유의하여($p < .05$) 완전구조동일성이 기각되었다. 이에 남녀 집단 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로부터 제약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부분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분측정동일성모형과의 χ^2 차이가 14.008로 자유도 차이 7에서 유의하지 않아 부분구조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보된 부분구조동일성모형에 의하면, 가족의사소통 및 친구관계에서 비관여 대처로의 직접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관여 대처에 대한 가족의사소통의 직접적 영향이 남자 집단에게 있어서는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p < .05$), 여자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관여 대처에 대한 친구관계의 직접적 영향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여자 집단에서는 이러한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p < .001$), 남자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8) 비관여 → EC2(인지재구조화) 경로 비제약

9) 가족의사소통 → 비관여 대처, 친구관계 → 비관여 대처 경로 비제약



*p<.05 **p<.01 ***p<.001.

비표준화계수. m:남자, f: 여자. 오차항 및 요인계수 생략.

[그림 3] 부분구조동일성모형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대처자원으로서 가족의사소통과 친구관계, 그리고 개인적 대처자원으로서 자기효능감이 대처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설정한 연구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의사소통 및 친구관계가 관여 및 비관여 대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 및 각 경로에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가족의사소통 및 친구관계가 관여 및 비관여 대처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유의하게 매개되는지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 모형에서의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대처자원인 가족의사소통 및 친구관계와 관여 대처 간의 관계는 개인적 대처자원인 자기효능감에 의해서 각각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화지향적 가족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이는 다시 적극적인 대처전략인 관여 대처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가족의사소통이 관여 대처에 직접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질의 친구관계 역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관여 대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도 관여 대처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적 대처자원인 가족의사소통 및 친구관계와 비관여 대처 간의 관계에서 개인적 대처자원인 자기효능감이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극적, 회피적인 대처 사용 감소에 미치는 환경적 대처자원의 영향은 개인적 대처자원인 자기효능감의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간접 효과를 제외한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결과는 환경적 대처자원이 관여 대처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전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극적 또는 회피적 대처전략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선행 연구들(Koerner & Fitzpatrick, 1997; Alexander et al., 2001; Taft et al., 2007)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환경적 대처자원과 대처 간의 관계 검증에서 가능한 매개 변인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적 자원이 어떠한 요인을 강화시킴으로써 대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대처전략에 대한 환경적 대처자원의 긍정적 효과는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셋째, 가족의사소통 및 친구관계에서 비관여 대처로의 직접 경로에서만 각각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경로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남녀 모두 동일하게 가족의사소통 및 친구관계와 관여 대처 사이의 관계가 자기효능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의사소통 및 친구관계와 비관여 대처 사이의 관계에서 남녀 모두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접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족의사소통에서 비관여 대처로의 경로에서 남녀 모두 대화지향적 가족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비관여 대처 사용 수준이 낮은 것은 동일했지만,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 효과를 제외한 직접 효과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대화지향적 가족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만 비관여 대처 사용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친구관계에서 비관여 대처로의 경로에서 남녀 모두 양질의 친구관계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효능감을 통한 매개효과를 제외한 직접효과에 있어서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남성은 여성보다 개인적이고 분리된 자아개념을 지니며,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더 관계지향적이라는 주장(Gilligan, 1982)과 맥을 같이 하여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관계지향적인 여성의 경우에는 친구 및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가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든, 직접적으로든 부적응적 대처 사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다 개인적인 측면이 중요하며 덜 관계지향적인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 및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만 부적응적 대처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족 및 친구와 같은 환경적 대처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대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부모 교육 또는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의 가족 내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또래에 대한 헌신이나 애정 또는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숙련 경험(mastery experience), 모델을 통한 대리 경험(vicarious experiences), 또래나 교사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의 피드백(feedback) 등을 통하여 강화될 수 있으므로(Bandura, 1986) 앞서 언급된 가족 또는 친구를 통한 지원 뿐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개입을 계획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비관여 대처에 대한 가족의사소통의 직접 효과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남자 청소년의 경우, 회피적, 소극적인 대처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개방적인 가족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족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 이르는 초기 청소년들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시기의 청소년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를 포괄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로 본 연구 모형을 확대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대처 이론에 근거하여 대처자원과 대처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나 횡단 연구를 통한 검증이므로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서는 종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첫째, 대처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대처의 효과성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는 대처의 효과성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에 기반하여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 유형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환경적 대처자원과 개인적 대처자원을 포괄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대처자원과 대처 간의 관계 뿐 아니라 환경적 대처자원과 개인적 대처자원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 변인들에 대한 성별의 차이만을 검증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 대한 대처자원의 차별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역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경애·정민정(2007). 가족기능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5권 제2호, pp.301-320.
- 고선주·이은희·나영주·황진숙·박숙희(2004).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개인, 가족, 학교, 인터넷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6호, pp.13-26.
- 김귀숙·정영옥·이나혜(2003). 아동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서정신과학*, 제6권 제2호, pp.259-279.
- 김유숙(2000).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 노호은·박경자(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연세교육과학*, 제49권, pp.55-71.
- 문병상(2000).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전략 훈련이 수학문장제 수행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pp.101-116.
- 박연성·현은민(2009). 남녀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제1호, pp.221-234.
- 신향숙·장윤옥(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제5호, pp.189-202.
- 이기학·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 제12권 제1호, pp.127-136.
- 이은혜·고윤주·오원정(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 해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3권 제3호, pp.105-121.
- 임수경·이형실(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9권 제3호, pp.169-183.
- 장해순·강태완(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일반*, 제13권 제2호, pp.104-130.
- 최정아(2009).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적용한 청소년의 관계적 괴롭힘과 우울 간의 관계 검증: 인지 및 대처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 pp.

383-410.

- 최희진·유영주(2004).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도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가족과 문화*, 제16집 제1호, pp.63-107.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161-177.
- 홍세희(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홍세희(2008). *구조방정식 모형의 고급 방법. 홍세희 교수의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4 자료집*. 서울: 학위사.
- Alexander, R., Feeney, J., Hohaus, L., & Noller, P.(2001). Attachment style and coping resources as predictors of coping strategies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Personal Relationships*, Vol. 8, pp.137-152.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pp.191-215.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laes, M. E.(1992). Friendship and person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Vol. 15, pp.30-55.
- Coleman, P.,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Vol.18, pp.47-85.
- Compas, B. E., Connor-Smith, J. K., Saltzman, H., Thomsen, A. H., & Wadsworth, M. E.(2001).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in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7 No. 1, pp. 87-127.
- Fitzpatrick, M. A., & Koerner, A. F.(1996, July). *Family communication schemata and social functions of communi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Research, Moscow, Russia.
- Fitzpatrick, M. A., & Ritchie, L. D.(1994). Communication schemata within the

- family: Multiple perspectives on family interac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20*, pp.275-301.
- Fordham, K.(1995). *The protective role of friendship for socially anxious children*.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diana.
- Fumam, W., & Robbins, P.(1985). What's the point? Issues in the selection of treatment objectives. In B. H. Schneider, K. H. Rubin, & J. E. Ledingham(Eds.), *Children's peer relations: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p.41-54). New York: Springer-Verlag.
- Gardner, K. A., & Cutrona, C. E.(2004). Social support communication in families. In A. Vangeilisti (Ed.), *Handbook of family communication* (pp.495-512). Mahwah, NJ: L. Erlbaum Associates.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Goss, S. M.(2006). *The influence of friendship quality and commitment on the empathy-forgiveness relationship in children and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 Holahan, C. J., Moos, R. H., & Bonin, L.(1997). Social support, coping, and adjustment: A resources model. In G. R. Pierce, B. Lakey, I. B. Sarason, & B. R. Sarason, (Eds.), *Sourcebook of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pp. 169-186). New York: Plenum.
- Holahan, C. J., Moos, R. H., & Schaefer, J. A.(1996). Coping, stress resistance, and growth: Conceptualizing adaptive functioning. In M. Zeidner & N. S. Endler(Eds.), *Handbook of coping: Theory, research, applications* (pp.24-43).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Hu, L-T, & Bentler, P.(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6*, pp.1-55.
- Koerner, A. F., & Fitzpatrick, M. A.(1997). Family type and conflict: The impact of conversation orientation and conformity orientation on conflict in the

- family. *Communication Studies*, Vol. 48, pp.59-75.
- Koerner, A. F., & Fitzpatrick, M. A.(2002). Understanding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family functioning: The roles of conversation orientation and conformity orientation. *Communication Yearbook*, Vol. 26, pp.36-68.
- Ladd, G. W.(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1, pp.1081-1100.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yons, J. S., Perrotta, P., & Hancher-Kvam, S.(1988).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Measurement across disparate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52, pp.42-47.
-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9 No. 4, pp.611-621.
- Schonert-Reichl, K. A., & Muller, J. R.(1996). Correlates of help-seek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Vol. 25, pp.705-732.
- Schwarzer, R. & Jerusalem, M.(1995).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In J. Weinman, S. Wright, & M. Johnston, *Measures in health psychology: A user's portfolio. Causal and control beliefs* (pp. 35-37). Windsor, UK: Nfer-Nelson.
- Schwarzer, R. & Scholz, U.(2000). *Cross-Cultural Assessment of Coping Resources: The General Perceived Self-Efficacy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First Asian Congress of Health Psychology: Health Psychology and Culture, Tokyo, Japan.
- Taft, C. T., Resick, P. A., Panuzio, J., Vogt, D. S., & Mechanic, M. B. (2007). *Violence & Victims*, Vol. 22 No. 1, pp.3-17.
- Tamres, L. K., Janicki, D., & Helgeson, V.(2002). Sex differences in cop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and an examination of relative coping.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6 No. 1, pp.2-30.

- Terry, D. J.(1991a). Coping resources and situational appraisals as predictors of coping behavior.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Vol. 12*, pp.1031-1047.
- Terry, D. J.(1991b). Predictors of levels of subjective stress in a sample of new parent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Vol. 43*, pp.29-36.
- Tobin, D. L.(2001). *User manual for th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 Tobin, D. L.(1995). *Scoring information for the CSI-S*.
- Tobin, D. L., Holroyd, K. A., Reynolds, R. V., & Wigal, J. K.(1989). The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of th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Cognitive Therapy & Research, Vol. 13 No. 4*, pp.343-361.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Newbury Park, CA: Sage.

ABSTRACT

A Study on Environmental and Personal Coping Resources and Coping of Korean Adolescents : Examining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Gender Differences

Choi, Jung-A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coping resources, family communication and friendship, and personal coping resources, and coping self-efficacy.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developed and empirically tested a theoretical model where each of the environmental coping resources was hypothesized to affect two coping strategies,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coping either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self-efficacy. The data of 1,238 adolescent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each of the environmental coping resources was found to affect engagement coping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through self-efficacy. However, family communication and friendship quality had significant effects on disengagement coping not directly but indirectly through self-efficacy. In addition,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each of the environmental coping resources and disengagement coping. These results imply that improving self-efficacy is an effective way to help adolescents use more engagement coping and less disengagement coping strategies. Given that both family communication and friendship quality hav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coping, it is recommended that strategies be developed which reinforce social networks including family and

* Jeonju University

friends. Finally, it is suggested differential intervention strategies according to gender be developed.

Key Words : adolescent, coping resources, family communication, friendship quality, engagement coping, disengagement coping, SEM, multi-group analysis

투고일 : 9월 14일, 심사일 : 10월 20일, 심사완료일 : 11월 16일

